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2월 1주차 동향 [2.2.~2.8.]

민원 동향

순위	민원 키워드	주요 내용	건수
1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요청	3,356
2	▼▼동 학군조정	★★초 통학구역 유지 요청	2,229
3	불법광고물	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1,549
4	@@@역 변전소	변전소 설치 반대	1,409
5	위례신사선	노선 연장 요청	655
6	불법 의료광고	온라인 과대광고 등 신고	551
7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투기 신고	493
8	제2경인선	조기 착공 촉구	455
9	GTX-B	☆☆역 정차 요구	443
10	인천2호선	노선 연장 요청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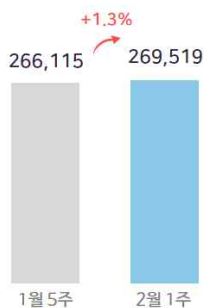
쓰레기 투기
위례신사선
인천2호선 통학구역
고양은평선
불법광고물
제2경인선 변전소 GTX-B
의료광고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교통단속민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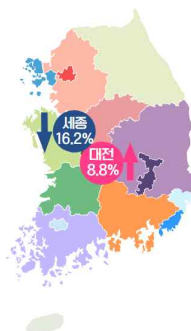
※ 1월 5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2월 1주차 민원은 269,519건(일평균 38,502건)으로 지난주(266,115건) 대비 1.3% 증가
- 지역별로는 대전(8.8%), 제주(7.5%) 증가, 세종(16.2%), 전북(5.9%)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전 마라톤 감독의 징계 처분 관련 등 체육 분야 증가,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허위 표기 위혹 조사 요청 등 문화 분야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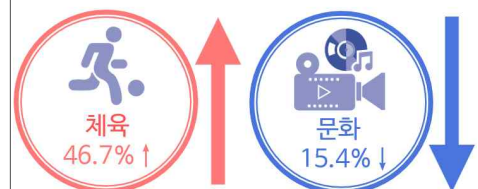
【 민원 추이 】



【 지역별 증감 현황 】



【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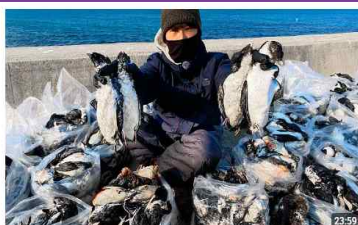
□ 겨울철새 등 바닷새의 혼획* 문제 대책 마련 촉구[95건]

- 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조류 혼획 문제 해결을 통해 어민들에게 안전한 어업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바다생태계의 보호를 요청

* 어업 활동을 한 결과 어획 대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게 되는 것

- **검토요청** 한국은 매년 겨울마다 바다쇠오리, 뿔쇠오리, 흰수염바다오리 등 여러 희귀 해양조류들이 동해안을 찾아오는데, 자망과 같은 어업용 그물에 걸려 매년 수천마리에서 많게는 수만마리의 해양조류들이 월동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쇠오리는 제한된 번식지와 이동 경로를 가진 해양성 조류로, 대량 폐사가 지속될 경우 개체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이는 생물다양성의 훼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 균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6.)
- 최근 연안에서 월동하는 바다쇠오리가 어민들의 그물에 걸려 집단으로 질식사하는 실태를 접해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이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학계와 시민 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해결책 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새가 불쌍하다'는 감정적 호소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쇠오리는 잠수하여 먹이를 찾는 특성상 그물을 식별하지 못해 사고를 당하며, 이는 어민들에게도 그물 파손 및 조업 효율 저하라는 경제적 피해를 줘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2.5.)
- 최근 해안 및 연안 해역에 방치되거나 유실된 어망(일명 유령어구)으로 인해 바다 쇠오리, 가마우지 등 물고기를 사냥하는 해양조류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깊은 우려를 느낍니다. 어망에 걸린 해양조류들은 스스로 탈출이 어려워 질식, 굶주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개체 수 감소뿐 아니라 해양생태계 전반의 균형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바다쇠오리와 같은 종은 국제적으로도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종으로, 현재까지 어망 유실 및 방치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 회수 관리, 그리고 어업 현장에서의 예방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2.6.)

▣ (참고) 혼획 관련 SNS 영상 및 언론보도



전부 죽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해양수산물 꼭 보세요

새덕후 Korean Birder

구독자 53.4만명

가입

구독

우리 바다에서 발생하는 잔혹한 혼획 현장.. 너무나 많은 바닷새들이 그물에 걸려죽고 있습니다

유튜버 새덕후(26.2.4.)

MBC

"이번 겨울 수만 마리 죽었다" 그물에 걸려 죽는 바닷새들 [지구한바퀴]

입력 2026.02.08. 오후 8:23 수정 2026.02.08. 오후 10:02

매년 겨울 동해에는 수십만 마리의 바다 철새가 날아와 머물니다.

그런데 이곳 경북 포항 바닷가에서는 이 철새들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호종으로 지정된 새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새들이 왜 몰속 그물에 걸려 죽을까?

바다쇠오리 같은 새는 물에 떠 있다가 잠수해서 사냥하는 잠수성 조류입니다.

먹이를 찾아 수십 미터까지 잠수했다가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을 미처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MBC(26.2.8.)

OmyNews

"우린 새 잡고 싶어 잡겠냐" 어민 절망 속 바다새 1만 마리의 죽음

입력 2026.02.10. 오전 11:16

이번 겨울 동해안에서만 1만 마리 희생 추정... 혼획의 악순환, 정부가 나서 끊어야

몰속 사냥하다 그물에 걸리는 새들... 어민들도 고통

현장에서 만난 어민들 역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우린 새를 잡고 싶어 잡겠느냐"는 그들의 말처럼, 그물에 가득 걸린 새들을 일일이 떼어내느라 조업 시간은 두 배로 늘어나고,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에 비싼 그물이 찢어지는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잔인한 처리 방식 뒤에는 어민들의 고단함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어민도 피해자고, 죽어가는 새들도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 모순을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오마이뉴스(26.2.10.)

□ ◆◆시 ◇◇산업단지 조성 계획 관련 의견[431건]

○ ◆◆시 일대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폐기물 처리 시설 난립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업 업종 제외 등을 요청

- 본 사업은 겉으로는 '자원재활용 일반산업단지'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전국 단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영리 목적의 매립·소각 복합단지입니다. 폐기물 용지 비율이 기형적인데, 전체 용지의 약 46.5%가 폐기물 처리 관련 용지로 할당되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산단의 폐기물 시설 비율(2~3%)을 10배 이상 상회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시를 우선하여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한다고 명시하여,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시하고 타 지역 폐기물까지 끌어 들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2.5.)
- 대단지 택지지구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E38(폐기물관련업종)으로 폐기물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실거주중인 수천명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2026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부반입문제 등)을 변경·철회하거나 E38 업종을 제외하여 인근 자연마을 주민들과 택지지구 5천여명의 환경 및 건강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2.3.)

□ ●●시 ○○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계획 반대[95건]

○ 지속적인 주택 개발로 교통 등 생활인프라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추가 개발로 야기될 수 있는 생활환경 악화와 녹지 훼손을 우려하는 의견

- ○○공원 이전 및 9,800세대 주택 공급 계획은 ●●시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며, 교통·환경·도시 기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정책으로 즉각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는 이미 약 1만 7천 세대 공급이 확정 또는 진행 중입니다. 단 하나의 대규모 단지 입주만으로도 ●●은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 정체, 하수처리 용량 부족, 학교·의료·생활 SOC 부족 등 도시 인프라 전반에서 포화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9,800세대를 공급하는 것은 ●●의 도시 기능을 유지하라는 행정이 아니라 도시를 마비시키는 행정입니다.(2.8.)
- ●●은 이미 수도권 남부 교통의 병목 구간입니다. 9,800세대라는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요 간선도로는 기능 불능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기존 교통 대책조차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공급은 시민들에게 '교통 지옥'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원 일대 녹지는 ●●뿐 아니라 수도권 남부의 중요한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은 기온 상승, 대기질 악화 등 환경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쾌적한 주거권과 환경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2.4.)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 중 증가 추세이거나 관계 기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이후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겨울철새 등 바닷새의 혼획 문제 대책 마련 요청	1AA-2602-0235059	해양수산부

※ 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기 위해 집단고충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쉽지 않은 집단민원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044-200-7418, 7321) 바랍니다.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검색하고 분석이 가능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 민원발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분석시스템을 기관별 민원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